



## LA한국교육원이 한글학교를 찾아갑니다.

- 뉴멕시코, 노스리지, 리버사이드, 팜스프링스, 애리조나 5개 지역에 한글학교 교사 연수 및 학교 운영 컨설팅 실시

- LA한국교육원(원장 강전훈)은 7월 25일 뉴멕시코를 시작으로 노스리지(8월 17일), 리버사이드(8월 23일), 팜스프링스(8월 23일), 애리조나(8월 24일)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사연수를 릴레이로 실시합니다.
- 지난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뉴멕시코 통합한국학교 교사 연수에는 약 25여명의 교사 및 학부모들이 참여하였습니다. LA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반을 지도하고 있는 허윤정 강사의 “수업 계획표, 성공적인 수업을 이끄는 지도” 라는 강의로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 준비 요령과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의 자료들을 공유함으로써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.
- 이날 연수에 참가한 진계선 뉴멕시코 통합한국학교 교감은, “이번 교사연수를 통해 체계적이고 재미있는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알게 되어 기쁘다. 앞으로 교사 연수를 활성화시켜 한글 교사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LA한국교육원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” 고 전했습니다.
- 8월 17일에 예정된 노스리지 지역 교사연수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이 집중해서 연수를 받도록 한인 유·초등학생을 대상으로 “찾아가는 뿌리교육” 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.

- 8월 23일부터 24일에는 리버사이드, 팜스프링스, 애리조나 지역을 순회 하며 대도시 인근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교사연수 참석이 어려웠던 한글학교들을 방문하여 교사 연수 및 운영자 컨설팅 및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
  
- 강전훈 교육원장은, “이번 교사연수를 비롯해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은 교육원의 중요한 사업이면서 법상 책무이기도 하다. ‘찾아가는 교사연수’ 를 작년 3개 지역(애리조나, 라스베이거스, 샌디 에이고)에서 올해 5개 지역으로 확대하게 되었다. 앞으로 교육원은 원거리에 있는 한글학교가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한글학교 교사 연수와 교육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습니다.

붙임 : 사진 3부. 끝.

※ 관련문의 : LA한국교육원 (680 Wilshire Place #200, LA, CA 90005)  
 (213-386-3112) Homepage: [www.kecla.org](http://www.kecla.org)

<b>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</b>	담당자	이상범 부원장 (213-386-3112)
	담당자	

사진 : 뉴멕시코 교사연수 - 1



사진 : 뉴멕시코 교사연수 - 2



사진 : 뉴멕시코 교사연수 - 3

